

작 품 명 세 서



ARTIST Park Meena
TITLE criwxy
YEAR 2009
MEDIUM Acrylic on canvas
SIZE 62 x 62 in
PRICE USD 24,000

이름 박미나
제목 criwxy
연도 2009
재료 캔버스에 아크릴
크기 158 x 158 cm
금액 28,000,000 KRW

• 작가약력

박미나(b.1980)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 미술대학교 회화과 졸업(1997)하고 헌터 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1999)했다. 박미나는 우리를 둘러싼 색채/이미지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과 환경을 탐구한 후 회화의 형식을 빌려 그 존재방식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외견상 단순하고 그래픽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의 작품은 미술과 언어를 조형요소로 삼는 추상화 혹은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색채와 제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현실의 단면을 시각매체를 통하여 사회문화의 구조를 분별하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유비적이며 메타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회화라 할 수 있다.

• 작품설명

작품을 처음 접하면 색과 형태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라는 위험물 표시 같이 보인다. 자세히 보면 가운데 보라색으로 모래시계를 기호처럼 표현하고 그 주위에 물방울 모양을 대칭되게 표현했다. 그 뒤의 진회색으로 그린 원을 중심으로 두 개씩 그린 곡선 또한 대칭으로 표현했다.

• 작품출처

작가소장, 2023

• 전시경력

에이갤러리, 에이라운지, 2023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작 품 보 증 서



ARTIST Park Meena
TITLE criwxy
YEAR 2009
MEDIUM Acrylic on canvas
SIZE 62 x 62 in
PRICE USD 24,000

이름 박미나
제목 criwxy
연도 2009
재료 캔버스에 아크릴
크기 158 x 158 cm
금액 28,000,000 KRW

We guarantee the authenticity and quality of this work.

If you suspect that the above work is a forgery, you can apply for an appraisal. If it is found to be a forgery after appraisal, cancel the sales contract with you and the full amount of the sale will be compensated.

상기 작품은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위 작품이 위작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후 위작임이 판명되면 귀하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금액 전액을 보상지급해 드립니다.

Date of Issue : 2023. 11. 1
Aproject Company Co., Ltd.
CEO Jay Jongho Kim

Condition Report
작 품 확 인 서



ARTIST Park Meena
TITLE criwxy
YEAR 2009
MEDIUM Acrylic on canvas
SIZE 62 x 62 in
PRICE USD 24,000

이름 박미나
제목 criwxy
연도 2009
재료 캔버스에 아크릴
크기 158 x 158 cm
금액 28,000,000 KRW

The above work is in an excellent condition. When the work is sold, it will be shipped to the customer after the condition check. We are fully responsible for all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nsportation process, and we will cover all shipping costs.

위 작품의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작품이 판매되어 발송할 경우 다시한번 작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 없을 때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작품금액과 운송비용 일체를 보상해 드립니다.

Date of Issue : 2023. 11. 1
Aproject Company Co., Ltd.
CEO Jay Jongho Kim